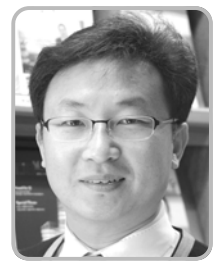




낙농 사료산업 전망



박 정 근
(주)우성사료 부장, 축우 PM

■ 2014년 낙농 사료산업은...

2014년의 낙농산업을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진행형’이다. 많은 제도의 보완에 따른 신제도가 적용되어 왔고, 여러 가지 변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살아 있는 삶의 현장이었다.

2014년도 낙농산업에서 있었던 주요 내용들에 대한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낙농업자들의 생산비 보전을 목적으로 ‘13년 8월 시행된 원유가격 연동제는 제조비 및 유통비용 인상에 따른 우유의 소비자 가격 인상을 유발하게 되어 ‘14년 시행되어야 할 연동제가 유보 되었으며, ‘15년에 누적연동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부분에 대하여 소비자 측면에서 상당한 불합리성을 제기하고 있으며, ‘생산비 보전은 소비자 지출의 증가’라는 결과가 결국 생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논의 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안을 잡고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 속 시원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축산인이라면 누구나 원했던 ‘FMD 예방 접종 청정국 지위 획득’이 2달이 되지 못한 채 FMD가 재발 되었다. FMD는 예방 백신 접종에 따른 많은 부작용, 생산성 감소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축산물 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나 연구기관에서는 구제역 백신에 대한 사후결과에 대한 연구자료를 만들어 발병 및 유입 원인이 정확히 규명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축산인들이 백신접종하여 생산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EU,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라는 나라들을 떠올리면 우리는 FTA를 연관지을 수 밖에 없다. 이들 나라들은 쇠고기 뿐만 아니라 유제품의 주요 수출국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의 성명서에 따르면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골자는 ‘낙농품의 대대적인 관세철폐와 분유 TRQ(무관세물량) 설정’을 뉴질랜드 측에서 강하게 요구

하고 있다는 것이다.

뉴질랜드는 EU와 함께 세계 유제품시장 교역량을 각각 34%씩 양분하고 있는 낙농 선진국으로 낙농 부문에 대한 투자 확대로 '13년~'14년 사이 총 180만톤의 분유를 생산했으며 그전보다 10% 증가된 양이라 한다.

이렇게 증가된 부분에 대한 해결책으로 방향을 수출로 잡고 있는 것이다. EU 역시 유제품 수출을 위해 '15년 4월 이후 부터는 쿼터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세계가 하나되어 가는 개방화 시대에 낙농 산업의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생각되나, 고품질의 원유를 생산하는 길만이 완충효과를 볼 것으로 본다.

또한 유단백질을 새로 도입하고 유지방 함량과 체세포수 가격을 조정하여 저지방 고품질 우유를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기호를 충족하고 원유 품질을 높이기 위해 원유가격 산정체계가 '14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행 되었다.

기본 원유 가격을 940원/L 조정하였으며, 유지방(상한선 4.3에서 4.1로 하향조정, 하한선 2.9에서 3.0상향조정, 체세포수(2등급 단가 하향, 3~4등급 패널티 강화), 세균수에 유단백(4원~19.41원) 항목을 추가 하였다.

지난 '12년도 검정성적 분석에 의하면 유

단백의 3.2 이상은 전체 농가중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가 나타나고 있어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표 1), 유단백을 올리기 위하여 배합사료 양을 증량 급여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이 대두되었으나, 시행 1년 동안 큰 문제없이 진행되었다. 사료업계에서는 유단백을 올릴 수 있는 제품들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2014년 사료업계는 상반기부터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원료가격 인하 및 환율 안정화에 대한 이유로 사료가격 인하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으며, 사료가격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사료 업체에서는 여러가지 이유로 가격표시제의 무용론을 제시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는 배합사료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내 외에서 생산·수입되어 국내의 판매업소에서 판매하는 양축용 배합사료에 대하여 가격표시제를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가지 행정적인 부분들이 2015년에는 사료업계를 어렵게 자리잡아갈 것으로 본다.

<표 1> 2012년 유우군 검정성적 분석-유단백질

범 위	두 수	비 율(%)
2.9이하	50,181	16.1
3.0이상~3.1미만	34,399	11
3.1이상~3.2미만	36,549	11.7
3.2이상~3.3미만	161,713	51.9
3.4이상	28,979	9.3
전 체	311,821	100



■ 2015년도 낙농 사료산업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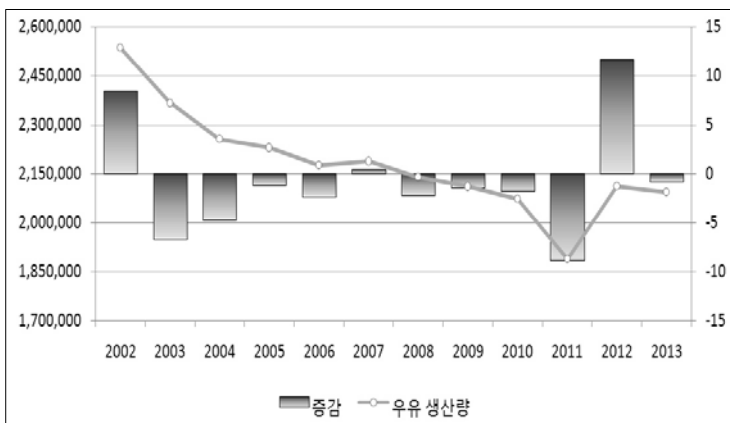
낙농진흥회의 보고자료에 따르면 '07년 월 평균 182,318톤인 반면 '14년 8월까지의 월 평균 유량은 185,537톤으로 3,219톤 늘었다. '14년 9월 전국 원유생산량은 5,956톤/일로 '13년 대비 4%, '10년 대비 7.5% 가량 늘어났다(그림 1).

이와 같은 원유 생산량 증가 원인으로는 유대정산체계 변화에 따른 수취가격 향상

으로 고능력우 도태 지연과, 송아지 생산에 적극 나섰기 때문으로 해석되며(14년 3/4분기 젖소 송아지 생산마릿수 4만 2천두), '14년 8월의 여름 평균 기온이 25°C 전후로 덥지 않은 기후를 나타내어 생산량이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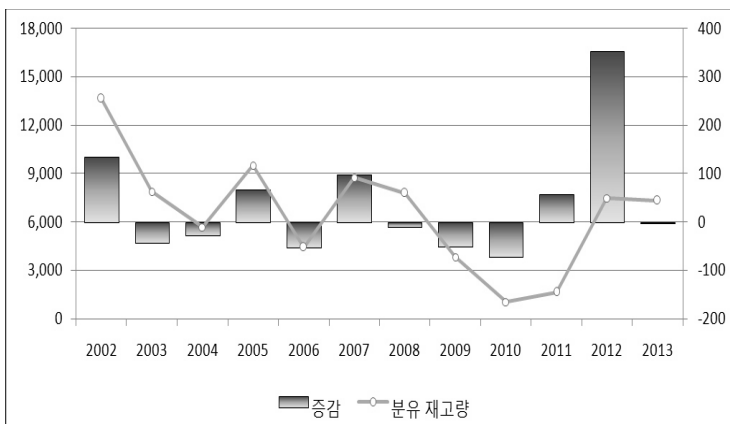
생산량 대비 원유사용량은 계속 줄어들고 있어 '14년 8월 원유사용량은 5,203톤/일로 '13년 대비 2.4%, '10년 대비 2.3% 가량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났다. 월말 분유재

년월	우유 생산량	증감
2002	2,536,648	8.5
2003	2,366,214	-6.7
2004	2,255,450	-4.7
2005	2,228,821	-1.2
2006	2,176,340	-2.4
2007	2,187,824	0.5
2008	2,138,802	-2.2
2009	2,109,732	-1.4
2010	2,072,696	-1.8
2011	1,889,150	-8.9
2012	2,110,698	11.7
2013	2,093,072	-0.8
20141~8월	1,484,296	



[그림 1] 원유 생산량

년월	분유 재고량	증감
2002	13,641	134.9
2003	7,877	-42.3
2004	5,674	-28
2005	9,505	67.5
2006	4,435	-53.3
2007	8,761	97.5
2008	7,795	-11
2009	3,822	-51
2010	1,050	-72.5
2011	1,648	57
2012	7,469	353.2
2013	7,328	-1.9
20141~8월	113,915	



[그림 2] 분유 재고량

<표 2> 젖소 사료생산 현황(1~9월)

항목	13년	14년	14년-13년	14년(%)
젖소	991,651	995,239	3,588	100
어린송아지	49,247	48,133	(1,114)	98
중송아지	70,670	66,655	(4,015)	94
큰송아지	122,779	118,290	(4,489)	96
임신우	22,129	22,521	392	102
종모우	1,381	2,509	1,128	182
비유초기	350,697	362,997	12,300	104
비유중기	73,903	73,835	(68)	100
비유말기	37,472	30,990	(6,482)	83
건유기	25,102	27,219	2,117	108
고능력우	238,271	242,090	3,819	102

* 농림축산식품부

고량도 '10년 8월 대비 '14년 8월은 352% 가량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으며(그림 2), 이와 같은 원유적체 현상 심화에 따른 잉여량이 제대로 소진되지 못할 시 '15년도 수급상황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문가들은 원유생산 감축 및 대북지원, 제3국 지원을 통한 분유재고 문제 해결 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현상들로 인하여 생산 원유 과잉에 따른 유업체의 생산량 감소 및 생산감축정책이 지속적으로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14년 1월~9월까지의 사료생산 현황은 '13년과 비교하여 3,588톤 증가하였으며, 이중 어린송아지, 중송아지, 큰송아지 사료는 2~6%정도 감소하였으나, 임신우 및 비유초기, 고능력우의 사료는 항목별로 적게는 2%, 많게는 82%가 증가하였다(표 2).

이러한 부분을 토대로 '15년도 낙농사료 산업을 예측해보면 건유기 및 임신우 분만 증가에 따른 분만전 송아지들의 사육두수 증가 및 비유초기 사료 증가, 건유기 사료량 증가에 따른 원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표 3> 월별 배합사료(공장도) 가격 동향

(단위 : 원/kg)

젖소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평균(1월~9월)
12년	505.2	504.6	503.4	501.1	499.6	499.8	500.8	501.2	500.7	501.8
13년	508.7	492.0	508.1	508.1	511.2	507.0	509.8	512.8	511.5	507.7
14년	504.0	503.4	502.2	506.6	508.1	508.9	512.1	514.0	512.4	508.0
14년-13년	(4.6)	11.5	(5.8)	(1.5)	(3.2)	1.9	2.3	1.2	1.0	0.3

*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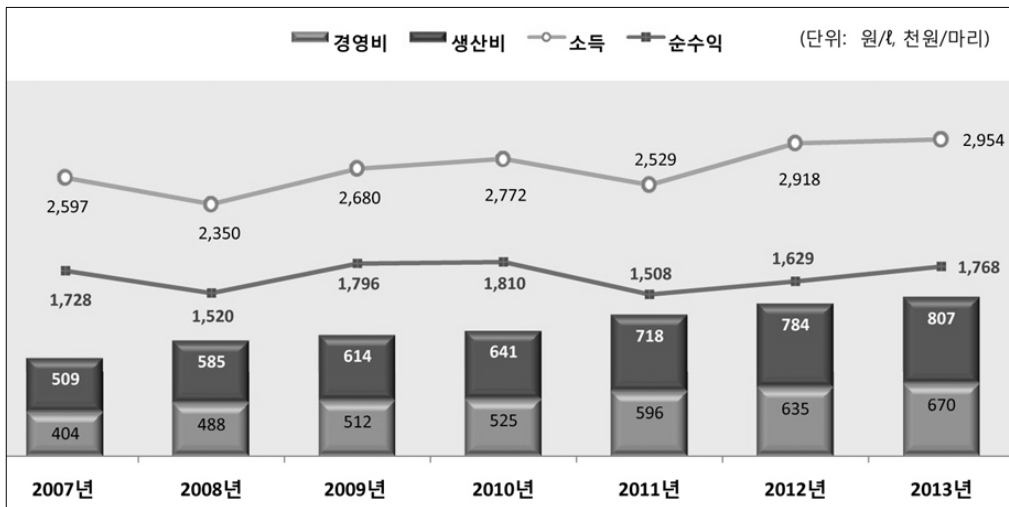


<표 4> 우유 ℓ 당 생산비와 젖소 마리당 수익성

(단위 : 천원)

구분	우유(ℓ)		젖소 수익성					
	경영비	생산비	총수입	일반비	사육비	소득	순수익	
			(a)	(b)	(c)	(a-b)	(a-c)	
'13(A)	670	807	8,907	5,953	7,139	2,954	1,768	
'12(B)	635	784	8,562	5,643	6,932	2,918	1,629	
증감	A-B	35	23	345	310	207	36	139
	%	5.6	2.9	4	5.5	3	1.2	8.5

* 통계청(2013 축산물 생산비 조사)



[그림 3] 우유 ℓ 당 생산비와 젖소 마리당 수익성

증가 될 것으로 보인다. '15년도의 낙농 산업의 성패는 증가하는 원유부분에 대하여 농장의 고품질 원유 생산, 생산비 절감 방안 모색, 고능력우를 만들기 위한 육성우 사양관리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월별 배합사료 가격 동향에 대해 살펴보면 '12년 대비 '14년은 1.2%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13년에 비하면 0.3% 수준 증가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표 3). 또한 '15년도의 배합사료 가격은 주요 원료의 수

급 안정이 예상되고 있어 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인상 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통계청의 '13년 축산물 생산비 조사'의 자료에 의하면 '12년 대비 순수익이 8.5% 증가된 결과로 나타났다(표 4, 그림 3).

낙농진흥회의 '국내 낙농산업 주요지표' 자료의 '14년 7월의 원유수취가격은 '12년과 '13년에 비하여 각각 4.2%, 4.9% 인상된 1073.21원으로 나타나(표 5), 수익성은 '13년 대비 향상 될 것으로 보이며, '14년 8

<표 5> 농장의 주요 수취 가격 변화

항목	전월대비			전년대비			'13년	'12년
	'14년 7월	증감율(%)	'14년 6월	'14년 7월	증감율(%)	'13년7월	합계/평균	합계/평균
원유수취가격(L/원)	1,073.21	(0.49)	1,078.51	1,073.21	11.2	965.1	1,022.92	981.41
초유떼기(암)(천원)	79	0.0	79	79	46.3	54	60	146
초임만삭(천원)	3,307	(0.9)	3,338	3,307	8.0	3,062	3,170	3,685
흰우유(L/원)	2,548	0.2	2,544	2,548	9.5	2,326	2,393	2,322

* 낙농진흥회

월 시행되지 못했던 가격연동제가 '15년 누적 연동제로 적용되는 부분에 따라서 낙농가의 수익성의 양상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연동제 적용으로 소비자 가격 상승('13년 7월 대비 '14년 7월 흰우유 9.5%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은 '14년 1~6월 우유 소비에 대한 소비자 조사결과 가구당 4주 평균 우유 구매량 5.28kg으로 전년보다 4.6% 감소라는 결과를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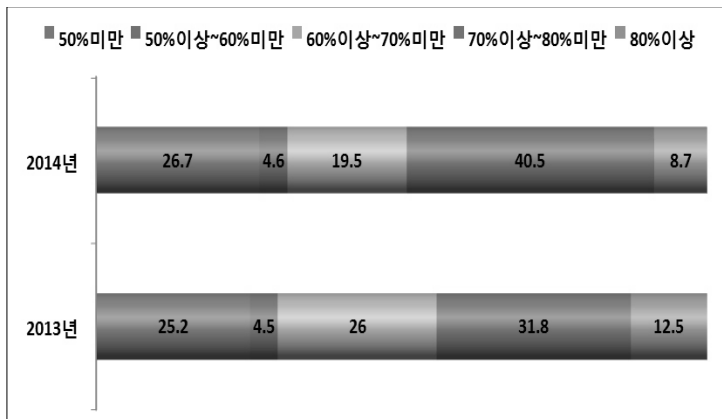
생산자, 유통, 소비자가 실이 없는 득만 있는 제도를 만드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겠지만, 제도의 보완으로 득만 있는 연동제가 2015년도에 실시 될 것이라는 조그마한 소

망을 가져본다.

낙농정책연구소의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의하면 유사비분포 70~80%의 농가가 '13년에 비하여 8.7% 높은 4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4), 이는 사료가격안정 및 기준유대인상을 감안하여 단기간에 원유생산을 늘리기 위해 배합사료 급여량을 늘렸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5년도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배합사료 과잉 공급에 대하여 나타날 수 있는 질병 예방에 따른 생산성 증가 및 조기 도태우의 비율을 줄여 가축상각비 증가에 따

분포도	2013년	2014년
50%미만	25.2	26.7
50%이상~60%미만	4.5	4.6
60%이상~70%미만	26	19.5
70%이상~80%미만	31.8	40.5
80%이상	12.5	8.7



[그림 4] 유사비 분포



른 우유생산비를 상승시키는 악순환을 억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낙농업계에서는 조사료 양을 줄이고 배합사료 위주로 사양관리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활성화 되고 있다. 이 부분은 갈수록 고령화 되어 가고 있는 부분과 사양관리의 편리성, 수입 조사료의 쿼터제 적용 및 단가 상승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여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로 '15년도 조사료 가격 대비 배합사료 가격이 안정적으로 적용된다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젖소는 장기적인 경제 동물임을 감안하여 반추동물의 생리에 맞는 사양관리를 강화하여 평균 산차를 높여 가야함은 두 번 다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 맺음말

2015년도 낙농산업은 'The end'가 아닌 '~ing'가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많은 발전과 변화를 예상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봤듯 2015년은 낙농 산업의 수익성에 많은 요인들이 '+'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쿼터제 제한을 제대로 활용한 원유 생산과, 고품질 원유 생산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면 많은 수익을 내는 축종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료업계에 불어오는 제도적인 역풍을 순풍으로 전환하여 2015년도를 만들어 가는 부분들이 가장 큰 숙제라 생각하며, 낙농가들의 입장에서 원유량 감축 정책에 홀대 받을 수 있는 육성기 및 건유기 우군의 사양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 또한 농장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 생각한다. ☞